

# 목포교육청, 영재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개강식

목포영재교육원, 중등과정 전체 학생 30명 대상  
대학생 3명의 멘토 10주 동안 밀착 지도할 계획

목포교육지원청은 2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센터에서 목포영재 R&E 창의융합발표토론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멘토가 만나 한 학기 동안 운영될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의 주제와 방향을 세우고 프로그램 활동의 교육적 목적과 효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운영되었다.

목포교육지원청이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R&E(Research & Education)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은 목포영재교육원 중등과정(자연과학, 인문, 발명) 전체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정치와 사회, 삶과 철학, 인간과 환경, 경제와 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팀별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토론 활동을 거쳐 통합적 사유 능력과 통찰력을 키워가는 자기 주도적인 탐구활동 프로그램이다.

11개 팀으로 구성된 참여 학생들을 고려대, 포항공대, 동신대 한의예과 대학생 3명의 멘토가 10주 동안 밀착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포영재교육원 김OO 학생은“제가 관심 있는 AI에 대한 주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설레고 기대된다. 친구들과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커질 것 같다. 아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수 교육장은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창의융합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장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목포 영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로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장으로 이어져 내실 있는 목포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라며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R&E 창의융합발표토론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는 7월 발표회를 통해 탐

구 활동과 성장의 과정들을 서로 나눌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 함평교육청, “나누고 보태는 연대를 통한 학교혁신 지원”



함평교육지원청은 1일 혁신학교 근무 경력 이 있는 관내 초·중 교원들로 구성된 학교혁신 지원단 협의회를 운영했다.

### 관내 초·중 교원들로 구성

이번 협의회는 2022년 함평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및 이를 토대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한 운영 방향과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원단은 전남혁신학교 및 전남자율혁신학교 근무 경력을 토대로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면서 올해의 운영 방향의 접점을 찾았다.

범미경 교육장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하는 학교자치와 더불어 학생의 삶과 역량을 중요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마

을의 교육력과 역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학교혁신지원단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력을 키우고 학생들이 마을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학교혁신지원단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등 지원단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그 안에서 함평의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을 담은 학교, 학교를 품은 마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모색할 예정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 전남메타스쿨 찾아가는 컨설팅 사전 협의회

온라인 부트캠프(1기) 67명 수료, 컨설턴트 양성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2022. 전남메타스쿨 찾아가는 컨설팅 사전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컨설팅단은 지난 “전남메타스쿨 온라인 부트캠프”를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 총 67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전남메타스쿨의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집합형태의 “찾아가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가 신청 7일만에 110개교 이상이며 돌아오는 4월 4일부터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협의회는 찾아가는 컨설팅에 앞서 컨설턴트의 운영 전반 안내 및 컨설팅 주요사항, 자주하는 질의 내용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중 운영된 부트캠프 과정을 수료한 선생님들에게 수료증과 (썬네이버)의 웨일에서 지원한 지원한 선물을 증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해 의미가 있었다.

김성희 교육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온오프라인 수업지원을 위해 전남메타스쿨 부트캠프(2기)를 운영할 계획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메타버스(zep)과 전남클래스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취업 프로그램 관련 수요조사

### 학생과 산업체 희망 사항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정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2주간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를 대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하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고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과 졸업생은 ‘행정 인턴, 현장 체험 등 참여 기회 확

대(27.7%)와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25.7%) 개설’ 등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개설을 희망한 반면, 산업체는 대학에서 ‘인성·태도, 일반직무역량 함양(58.6%)’과 ‘현장실습 및 인턴 경험(41.4%)’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확대(43.2%)’와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29.0%)’이었고, 산업체는 ‘기업의 인제 상에 맞는 인제 추천(37.7%)’이라고 응답하

였다.

심상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개선과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취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향후 진로 캠프, 취업특강 릴레이, 취업동아리 등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 기업 및 직무탐방, 순천시 행정 인턴, 직무체험형 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